

8월 광주는 거대한 '예술 축제'의 장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후'

8일~11월 9일
국내의 예술인들
34년 전 80년 5월의 아픔
문화로 승화시켜

광주가 하나의 거대한 축제장으로 변모한다. 바탕에는 '광주정신'이 깔려있다. 국내외 수많은 예술인들이 34년 전 일어난 80년 5월의 아픔을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킨다.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8일부터 11월9일까지 5·18 사적지, 시립미술관을 비롯한 광주 곳곳에서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특별프로젝트 '달콤한 이슬-1980 그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8일 오후 4시 옛 전남도청과 금남공원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해 80년대 민중미술 정신을 재현하는 걸개그림 퍼포먼스를 펼친다. 또 밤 9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국내는 물론 일본, 대만 등에서 찾아온 100명의 예술가들이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를 밤새워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유명 퍼포먼스 작가들이 5·18 등 국가폭력에 대한 신체 미술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축제 열기를 고조시키고, 앞서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이 개막하는 등 94일간 광주에서 열리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정신' 조형적 승화=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에서는 20세기 전 세계 민중 미술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14개국 47명의 작가가 참여해 민중미술을 조망하는 등 사회에 대한 증언과 치유의 메시지를 던진다. 민주, 인권, 평화를 함축하는 '광주정신'을 조형적으로 승화시킨 전시다.

특히 제주도와 오키나와, 타이완, 광주가 지닌 국가 폭력이라는 역사적 상처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사의 담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민중들의 자유를 향한 외침과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조형적으로 승화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한다. 임남진의 '오월 장막도-님을 위한 행진곡', 오일의 '광주A', 도미야마 다에코의 '광주의 피에타', 강연균의 '하늘과 땅 사이', 고삼권의 '슬픔' 등을 통해 당시 시대상을 만날 수 있다.

나치시절 저항운동을 한 여류화가 케테 콜비츠의 작품과 1930년대 항일 목판화운동을 펼친 투선의 작품, 벤산의 작품 등도 만날 수 있다. 특히 케테 콜비츠



8~10일 금남로와 오월길 등에서 진행되는 국제퍼포먼스 아트 'LOOK TOGETHER'에서 만나게 되는 에스토니아 퍼포먼스 작가 닐 그라타의 작품.

와 루신 작품은 모두 100여점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대규모로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다.

◇퍼포먼스와 강연으로 만나는 광주=1980년 오월 현장과 일상적 장소 등 광주 곳곳이 퍼포먼스의 무대가 된다. 1980년을 온 몸으로 만나고 체화한다.

'달콤길, 다섯 개의 정'(五甘井=예정+열정+공정+우정+공정)을 주제로 열리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현장에서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국제 퍼포먼스 네트워크, 오월 단체, 기획자, 작가, 공연 예술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안토니 크라와우스키·아티 그라보스키(이상 폴란드), 로시오 불리비(멕시코), 닐 그라타(에스토니아), 리카르도 말리카스(이탈리아), 성능경·김광철(이상 한국) 등 퍼포먼스 작가들이 펼치는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다.

오월사적지를 코스로 움직이는 518번 시내버스를 예술 작품으로 변신시킨 '518아트버스'도 눈길을 끈다. 버스에서는 집단 신체 퍼포먼스와 즉흥 공연을 펼치는 '광주 버스 일상 프로젝트' 등이 진행된다.

8일부터 세계적인 석학과 인권단체, 문화행동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여



나치시절 미술을 통해 실상을 알린 독일 출신 여류화가 케테 콜비츠의 '어머니들'(사진) 등 판화 작품 50여점이 광주시립미술관에 전시된다.

해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인류 사회의 현재와 미래적 화두를 모색하는 강연 시리즈도 진행된다.

자세한 특별프로젝트 일정은 광주비

엔날레재단 홈페이지(<http://www.gwangjubienalle.org/>)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장승일과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국립광주박물관 9일 오후 4시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9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장승일과 떠나는 세계음악여행'을 주제로 토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을 진행하는 장씨는 성악가, 요들러, 이색악기 연주가로 활동 중이다. 광주 KBS1 열린마당에 출연했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담양 대나무 축제에서 공연을 하는 등 지역 축제와 국제 행사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성악, 가요, 팝송뿐만 아니라 평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요들송, 알프른 연주, 톱 연주, 카우벨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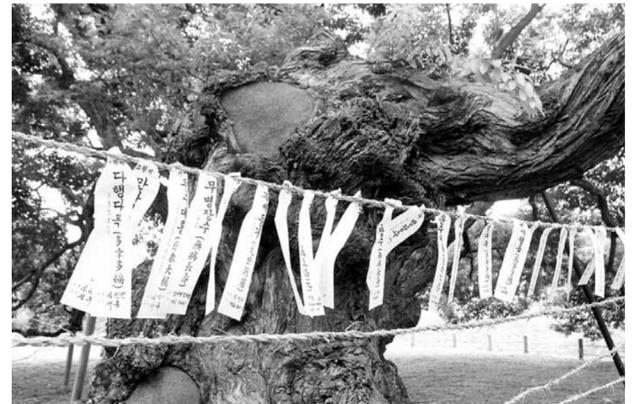
장씨는 세계에서 가장 긴 악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알프른, 소의 목에 다는 종 모양을 닮은 카우벨, 연주자의 다리 떨림으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3옥타브가 넘는 음을 소화하며 청아한 음색을 들려줄 톱 악기 연주를 통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악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줄 예정이다.



카우벨 연주

공연은 무료다. 3세 이상 입장가능하며 3시40분까지 선착순으로 3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39호로 지정된 충효동 왕버들 나무에 매달아 놓은 소원 성취문.

왕버들 나무 아래 휴식과 놀이의 난장 '백중놀이 한마당' 열린다

9일 광주 북구 충효동

충효동역사마을발전협의회가 백중을 하루 앞둔 오는 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효동 왕버들 나무 일대에서 '백중놀이 한마당'을 진행한다.

'백중'은 세벌김매기가 끝난 후 여름철 휴한기간 음력 7월 15일 하루동안 휴식을 취하는 날로, 선조들은 이날 하루 음식을 나눠먹으며 휴식과 놀이의 난장을 벌였다. 광주문화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올해 백중놀이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전통복

장을 하고 씨름대회, 들들 들기, 호미씻이 등 다양한 놀이를 보여주고 소원 성취문 달기, 어린이들을 위한 옷놀이·굴렁쇠·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도 진행된다.

점심시간에는 충효마을 부녀회가 준비한 닭죽, 파전을 비롯해 유네스코 유니버설 클럽의 이주여성 음식나누기 등 나눔행사가 마련된다.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산물 경매 시장도 열린다.

문의 062-670-742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 일곱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강적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쇼!
매주 수요일 밤 11시 방송